

천정배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인터뷰

민주당 개혁특위가 최근 제시한 공천 개혁 방안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과감한 공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불같이 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공천 개혁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슈퍼스타 K’ 방식 공천 3분의1 반영

-민주당 개혁안은 언제 확정되는가.
▲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을 확정된 뒤,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올 상반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개혁특위가 제시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당원제와 공천 방법 개혁을 들 수 있다. 정책당원제는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론 20~30대와의 소통을 강화, 외연 확대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공천 방식 개혁은 역량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게 할 것이다.
-개혁특위가 제시한 ‘슈퍼스타 K’ 방식 공천이 눈에 띈다. 흥행이 목적인가?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진짜 실력으로 겨루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정치인들도 공개된 자리에서 진짜 실력을 겨루고 평가를 받아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30대가 있다. 또한, 30대 이상은 스스로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현재의 20대는 미친 등록금과 고실업 시대에 부대끼며 폭발 직전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오남용 여지도 없지 않다.
▲주인인 당원에게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지는 않겠으며 오남용을 막을 보완책을 강화하겠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MB 정권의 폭정을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확고한 개혁 등을 통해 정세적 있는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정신을 정의한다면.
▲‘정의와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명박 정

정치인도 공개 자리서 평가받게

공신력 있는 단체에 배심원의뢰

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흥행은 부차적이다.
-‘슈퍼스타 K’에서도 배심원제가 도입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배심원제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선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입되기 때문에 지역 선결과 관련,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수 없다. 배심원은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아웃소싱할 계획이다. 또한, 슈퍼스타 K의 점수는 전체 공천 점수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3회 이상 토론회가 진행되는 데다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각각 3분의 1씩 반영된다는 점에서 오류가 최소화될 것이다. 여기에 추후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마련될 것이다.
-전국 200곳 내외의 지역에서 슈퍼스타 K가 진행되어야 하는 데 가능한가.
▲각 지역에서 6명의 배심원단이 3회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전당대회에서의 ‘전당원 투표제’를 제안했다. 당원 정비가 완료됐는지.

▲중앙당 조직국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원 투표도 중앙 대의원(10%)과 당비납부당원(30%), 일반 당원(60%) 등 차별화를 통해 균형을 잡았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모바일 투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
▲당내 경선이라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전에도 몇 차례 시행한 바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당세와 인구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것을 좀 더 보정하면 된다.
-지역구 여론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지수를 개발, 기준에 미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의 경선 참여를 배제하는 안을 검토중인 데.
▲우선 이 방안은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하는데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다. 객관적 평가지수에 포함될 세부 사항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평가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과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청년 비례대표 나이를 25세에서 29세로 제한했다. 나이 제한을 35세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략공천 선정 기준·근거 마련

평가 미달 의원 경선 배제 검토

권 들어 기득권 계층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대권 도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한 눈 팔지 않고 민심의 바닥을 뚫박 뚫박 걷고 있다. 어려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민심과 함께 정도를 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색깔론과 지역주의의 이중 덫을 온몸으로 극복했다. 정의로운 호남 민심이 천정배의 진심을 알아 줄 것이다.
-지역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31주년을 맞는다. 민주, 인권, 평화를 모토로 하는 5·18 정신은 현 시점에서 정의와 복지로 나타나고 있다. 순천에서 야권연대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호남 민심이 ‘불의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의 시대를 열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따끔한 질책과 성원을 부탁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덴마크와 ‘녹색동맹’... 친환경 선점 발판

이대통령 유럽 3국 순방 성과와 의미

佛과 ‘칸 G20 성공개최’ 협력...파리 7대학서 名博

이명박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순서로 이어진 이번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는 덴마크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외교사에서 이례적인 ‘녹색성장 동맹’을 체결한 대목이다.
이는 미래 세계의 주도산업이 될 친환경 녹색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달하는 덴마크는 초고속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늘지 않았고 오는 2050년부터는 화석연료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세계 정상들 중에서 최적의 동반자로 여겨져왔다.
덴마크도 한국이 불과 3년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6배 성장시키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칸에서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 여는 프랑스에서는 전·현직 의장국으로서 올해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9개항의 ‘G20에 관한 한·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칸 G20정상회의에서 곡물과 원자재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끌어내자는 데 합의했으며, 세계경제 불균형 완화, 성장·고용을 위한 정책공조, 금융안정망 확대를 통한 국제통화체제 개선, 개발 분야의 구체적 도출 등 주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파리 7대학에서 예술·문화·철학·고전학 분야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파리 7대학이 명예박사 수여식을 한 사람에 대해 단독으로 연 것은 처음이라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애육원 찾은 이희호 여사
15일 광주를 방문한 이희호 여사가 북구 동림동 애육원을 찾아 아이들의 합창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여사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프간 한국 재건팀 기지에 또 로켓포탄

14일 오전 0시45분께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에 로켓포탄 1발이 떨어졌다. 포탄은 차리카 기지 외곽 200여m 지점에 떨어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수색정찰을 통해 파편을 발견했다”면서 “포탄은 기지 인근 마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상황은 현재 아프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울머어 차리카 기지를 겨냥한 포탄공격은 7차례에 달하며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에는 두번째다. 오사마 부대는 지난 4월 말부터 테러 세력의 춘계 공세 강화 첩보에 따라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영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various seafood dishes like abalone, scallops, and shellfish. Text includes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Advertisement for '쌍촌동 맛집 월화수' (Ssangchon-dong Restauran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meal (Bibimbab) with a chicken drumstick. Text includes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and location information: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